



초록우산재단, 임실군 저소득가정 주거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20일 임실군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3,2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 아동가정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형 주민복지과를 통해 추천된 아동가정은 노후화된 흙집의 벽이 무너져서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어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주거 공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후원자인 (주)수도(대표 조현숙)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타일, 배관 일체 등의 건축자재를 지원하며 주거지원사업에 힘을 보탤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의용소방연, 소방기술경연대회 · 가족한마당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20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전주완산소방서 주관으로 '2022년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및 가족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기술경연을 통해 재난대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대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해 사기진작 및 조직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심민 임실군수, 정일운 임실군의회 부의장, 박정규 도의원,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오영진·이미숙 전북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리산생태탐방원, 취약계층 숲 속 결혼식 진행

지리산생태탐방원(원장 임철진)은 지난 17일, 가정형편 등 경제적 상황으로 결혼식을 미루어 왔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리산탐방공원 숲 속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결혼식에서는 아외무대, 예복 결혼사진, 꽃다발, 답례품 행사지원 등이 제공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뜻깊게 이루어 졌다. 탐방원 이관욱 운영관리부장은 "매년 지리산 속에서 진행된 작은 결혼식이 신혼부부에게 백년가약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주간행사 진행

남원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제15회 치매극복의 날(9.21)을 맞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진행한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7년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원시치매안심센터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단체 4개소를 방문해 이용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바로알기 퀴즈 한마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3일살기+텃밭농사' 프로그램 운영

50+세대, 완주에서 귀농귀촌 체험

전주시와 완주군은 50+세대의 인생 후반기 설계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완주에서 3일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50+세대들은 완주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장전학 △사계날표 △마을 체험 △공공체 경차 등을 체험했다. 또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공동 텃밭에 배추와 무, 쪽파를 심기도 했다. 3일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50+ 세대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은 배추와 무, 쪽파를 향후 3개월간 함께 가꾸 나가게 된다. 이후 12월 초 거둬드린 수확물의 일부는 참여자끼리 나누고 나머지는 필요로 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완주에서 3일 살기 이후 형성된 커뮤니티를 이끄는 심용식 회장은 "완주에서 3일 살기는 끝났지만 앞으로 함께 농사를 지어 김장용 작물을 키우는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인숙 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완주에서 3일



살기'를 통해 50+세대들이 인접해 있는 완주군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생 후반기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완주군과 협력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전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접한 지역간 상생의 물꼬가 트이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개발 교육 추진

임실군이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에 참여할 12개 읍면 생활개선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향토음식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 및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2022 임실N치즈축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한 읍면별 주요 향토음식 먹거리로 주메뉴 7종 부대 메뉴 30여 종을 예비 선정했다. 그중 다슬기탕, 소머리국밥, 치즈찰수수부꾸미 등 13종의 대표적인 향토음식 메뉴에 대한 다양한 재료 응용 조리법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대비 식중독 예방 등 위생 안전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실천 및 친절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문가 생활개선회원연합회장은 "12개 읍면 생활개선회가 축제에 모두 참여하여 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향토음식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성공적인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 및 표준 조리법을 개발하여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실군의 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익산시, 영유아 중심 축제로 명품아동친화도시 조성

익산시는 아이가 행복한 명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 대상 가족참여축제'를 개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오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영유아 가족들을 위한 제8회 육어나누기 행복다하기 가족놀이축제'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3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놀이 축제로 어린이 뮤지컬, 요리체험, 미술체험, 놀이체험관 무료 이용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지역 영유아 유관기관인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글로벌문화관, 익산시가족센터, 원광보건대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문화된 체험

활동을 선보인다.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채소모양심지와 조물러미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인권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익산시글로벌문화관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세계전통의상과 악기 체험 경험을 선사한다.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요즘 최대 관심사인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행사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ildcare.iksan.gov.kr>) 또는 전화(063-859-476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보건소, 비대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생활속 남원을 걷다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 사업 챌린지는 총 3회로 △1차 9월 26일~10월 9일 △2차 10월 24일~11월 6일 △3차 11월 21일~12월 4일로 운영되며, 각 챌린지 기간인 14일 동안 100,000보 걷기(1일 최대 10,000보까지 인정) 목표를 달성한 사람 중 200명을 추첨해 인센티브(남원시상품권 1만원권)를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 설치 및 남원시커뮤니티 '생활속 남원을 걷다' 가입 후 커뮤니티 내 챌린지에 참여하면 되고, 목표를 달성한 후 리워드 응모권에 "응모하기"를 눌러야 하며 누르지 않을 경우 추첨에서 제외된다. 추첨된 참여자는 워크온 선물함에 쿠폰이 발행되고 추첨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성평등 문화 프로그램 실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영이)는 20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웃사랑관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알아보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양성평등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는 27일에도 한 차례 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이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학생 3명, 무역협 이스탄불 차세대 회원 취득

전주대학교 IINC 3.0 사업단(단장 주승)은 2022 Istanbul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에 참가했던 본교 학생 3명이 세계한인무역협회 이스탄불 지회(World-OKTA ISTANBUL)의 정관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로 정식 차세대 회원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World-OKTA의 차세대 회원은 해당 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만 45세 미만인 자로 집행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22년 8월 26~28일까지 진행된 창업·무역스쿨에서의 역량 있는 활동 이력이 인정받아 정식 회원 가입이 가능했다. 이는 국내 대학생으로 World-OKTA 해외 지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최초 사례다. 이소희(일본언어문화학과 4년), 박고은(호텔경영학과 4년), 김유나(산업디자인학과 4년) 학생은 World-OKTA ISTANBUL의 차세대 회원으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무역 증진 및 창업 시장을 확장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외시장 진출을 견인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주대학교 IINC 3.0 사업단은 글로벌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과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에 힘쓰고 있다. 특히 헤리스타(Heri-Star)라는 이름으로 과거 전라권지역로서 고급 문화가 살아 있는 전주의 전통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알려지고 또, 세계 속의 한류 문화(K-Culture)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산업 밸리를 구축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전북농협-태인농협, '농업인행복버스'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 태인농협(조합장 한상근)은 20일 태인농협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행복버스'를 진행했다. 이날 농협은 무병장수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기원하는 장수시진 촬영과 일상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검안 및 무상 톨보기 지원 등을 실시하며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선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향 농업인·취약계층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는 도서·오지 등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 의료진료, 장수사진 촬영, 검안·톨보기 지원 등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실익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비전대, 간호학부 재학생 안옥희 회장 초청 특강

전주비전대학교는 간호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협회 전북지부 안옥희 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예비 간호사들이 갖춰야 할 간호정책에 대한 이해와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함으로, 교육은 최신 간호정책과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 과정 등이 주된 내용이였다. 이찬양 학생(2년)은 "특강을 통해 간호정책의 방향과 법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간호대 학생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미래의 간호사인 나와 내가 만나게 되는 대상자를 더 잘 케어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현 간호학부장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정책에 관심을 갖고 간호 관련 정책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간호계의 리더로 성장할길 기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할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는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